

1. 교회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하시거나
여기 QR코드를 찍으셔서 바로 등록 절차를 밟으실 수 있습니다.
필수 성경공부인 '길찾수(길을 찾아 만난 예수)' 성경공부를 이수하셔야 합니다.



2. 아침묵상

수요성경공부가 시작되는 동안은 화요일,수요일,금요일에만 아침묵상이 업로드될
예정이며 목요일 아침에는 수요성경공부영상이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3. 가을소풍

10월 6일(주일)에 가을 소풍을 떠날 예정입니다.
모임 장소는 기존에 모이던 Tallman State Park입니다.
시간은 오전 11시입니다.
당일 주일예배는 온라인을 통해서 드리지며 시간은 오전 9시에 드리집니다.
각자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동참하신 후에 모임 장소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일 날씨에 의해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난 주 (9/15) 헌금 통계

선교구제 헌금란이 없는 이유는 매주 전체 헌금에서 5%를 선교구제비로 구별하기 때문입니다.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해 재정 보고서를 매월 첫째 주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총 액

\$1,200.00



예수님을 머리에 사람을 가슴에

*예배로 부름 Call to worship		다함께
*찬양과 경배 Songs of Praise		다함께
기도 Prayer		최은숙
*주님의기도 Lord's Prayer		다함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눅8:26-39	다함께
말씀선포 Sermon	예수가 만난 광인	유형선
*찬양 Praise		다함께
*봉헌&축도 Offering&Benediction		유형선

*가 있는 순서에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세요.
헌금은 예배당 입구에 들어오면서 헌금함에 넣어주세요.

주일대표기도

9월 29일	10월 6일
윤한진	유영환

예배시간안내

주일예배	오후 2시 (분당)
수요성경공부	저녁 7시 30분 (온라인)(가을에다시)
아침묵상	(화,수,목,금) 매일 오전 6시 (Youtube)

공동기도제목

- 말씀 안에서 - 부활 신앙으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며 합당한 삶을 살게 하소서
- 나라와 민족 - 민족을 치유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민족이 되게 하소서
- 교회와 선교 - 교회가 십자가 앞에 무릎꿇고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게 하소서

도대체 누구시길래

누가복음 8장의 내용은 하나의 이야기로 서술되고 있습니다. 길가밭과 돌짜밭과 가시덤굴밭이 전부 우리 자신이라고 설명하는 성경은 우리의 노력으로 절대 옥토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예수님의 가족이냐는 질문으로 던지면서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들이 예수께 나아가고자 하였으나 가지 못했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행한다는 것을 또 오해해서 자신이 말씀을 행할 수 있다고 착각할까 우리의 실체를 한번 더 적나라하게 고발합니다.

오늘 본문은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앞에서 말한 내용과 연결되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배에 오르셔서 건너편으로 함께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분명 이 길을 가자고 먼저 말씀하신 분은 주님이시라는 것을 명확히합니다. 제자들은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바다는 세상을 상징하고 배는 우리의 인생을 상징합니다. 예수를 믿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와 함께 배에 올라 바다를 건너가는데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십니다. 여기서 주무신다는 것은 일부러 침묵하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즉시로 겁에 질려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제자들이 죽게 되었다는 것은 자신의 노력과 의지로는 이 풍랑을 헤쳐나갈 수 없는 유한한 존재임을 증명하고 고백한 것입니다.

너희의 힘으로는 이 바다를 건널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깨어나십니다. 그리고 바다를 잠잠케 하십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벨으신 말씀은 풍랑 속에서 두려워하던 제자들을 위로하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라고 호통을 치십니다.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는 표현은 단순히 믿음이 있느냐의 질문이라기 보다는 그 믿음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나에게 머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의 확신과 나의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을 바라봅니다. 그 사람이 말씀에 경청할리가 없고 기도할리가 없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반응은 도대체 이 분이 누구시길래로 나아옵니다. 고난을 통해 고난이 해소되었는데 단순하게 문제가 해결된 것에 기뻐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통해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누구십니까?로 나아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 이 질문을 던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주님은 누구십니까? 입니다. 주님을 알기 전에는 주무시는 무력하고 영향력없는 아무 존재도 아닌 것처럼 여겨졌던 분이 풍랑을 잠재우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보고 나서 당신이 누구인지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 분이 자신들의 구원자 구세주 창조주이심을 알게 된 것입니다.

광야와 풍랑이라는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만나가 있음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모든 풍랑 앞에서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알게 하옵소서.